

홍백창의 금강산 기행시집 『句日記』 연구

강혜규*

< 目 次 >

- | | |
|------------------|-----------------------|
| I. 서론 | III. 『句日記』와 『文日記』의 관계 |
| II. 『句日記』의 시적 지향 | IV. 결론 |

<국문 초록>

『句日記』는 18세기 문인 洪百昌(1702~1742)이 30대 중반 지은 금강산 기행시집이다. 본고는 『구일기』 서문에 나온 창작의식에 의거하여 『구일기』를 분석하되, 한편으로는 홍백창이 주창한 시적 지향에 주목하고 다른 편으로는 기행시와 기행산문의 관련 양상에 주목하여 고찰하였다.

홍백창은 『구일기』에서 시의 성률과 격조보다 팝진성을 중시하고 있다. 또, 『구일기』는 금강산 총서인 『東遊記實』 안에서 기행일기인 『文日記』와 짝을 이루어 기행시와 기행산문의 유기적 관계를 조명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 ‘구일기’는 시로 쓴 일기라는 뜻으로, 『동유기실』 내에서 산문으로 쓴 일기라는 뜻의 ‘문일기’와 표리가 된다. 『구일기』와 『문일기』는 창작의식에서부터 시와 산문의 관계를 표리로 설정하여 제목의 짝을 맞추고 시를 일기에 맞게 기행순서대로 배열하여 서로의 관계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이를 하나의 총서 속에서 엮어내고 있다.

【주제어】 홍백창, 구일기, 금강산, 기행시, 동유기실

* 서울시립대학교 강사 / wyeyang@naver.com

I. 서론

『句日記』는 18세기 문인 洪百昌(1702~1742)이 30대 중반 지은 금강산 기행시집으로, 총 125수의 시로 이루어져 있다. 시는 대부분 5언 절구와 7언 절구이고, 歌行 偈 銘 吟 등의 다양한 詩體를 사용하며 읊시나 연작시도 있다. 『구일기』는 금강산 총서 『東遊記實』의 卷4에 실려 있다. 『동유기실』은 18세기 유기의 총서적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기행일기인 『文日記』와 기행수필인 『雜著』, 기행시집인 『구일기』의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일기』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그 전반적 특질인 ‘뽕진한 紋景과 路程의 재현’의 측면을 소개한 연구가 있다.¹⁾

『구일기』는 두 가지 점에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구일기』는 서문에서 창작의식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서 시인 홍백창이 기행시의 사실적 구현에 주목한 점이 드러난다. 이 점에서 『구일기』의 분석은 당대 기행시의 문학적 흐름과 연관 지어 논의될 여지가 있다. 둘째, 『구일기』는 『동유기실』 내에서 기행일기인 『문일기』와 짝을 이루어 기행시와 기행산문의 유기적 관계를 조명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구일기’는 시로 쓴 일기라는 뜻으로, 산문으로 쓴 일기라는 뜻의 ‘문일기’와 제목에서부터 表裏를 이루고 있다. 문인들이 유람 중 일기와 시를 동시에 창작한 것은 조선후기의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기행시가 기행일기의 중간에 삽입되거나 기행시집을 기행일기와 별개로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구일기』와 『문일기』는 저자가 제목의 짝을 맞추고 시를 일기에 맞게 기행순서대로 배열하여 각 장르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이를 하나의 총서 속에서 엮어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행시와 기행산문의 유기적 관계를 조명하는 데 『구일기』의 분석이 유용하리라 판단된다. 이에 『구일기』와 『문일기』를 비교 분석하여 시와 산문으로 여행체험을 형상화한 양상이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즉 본고는

1) 강혜규, 「농재 홍백창의 『동유기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4.

금강산 기행시집 『구일기』를 서문에 나온 창작의식에 의거하여 분석하되, 한편으로는 홍백창이 주창한 시적 지향에 주목하고 다른 편으로는 기행시와 기행산문의 관련 양상에 주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Ⅱ. 『旬日記』의 시적 지향

이 장에서는 『구일기』 서문에 드러난 시적 지향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서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詩道에 대한 부분과 기행시와 기행일기의 관계에 대해 서술한 대목이다. 여기서는 시도를 주장한 대목을 고찰하기로 한다.

금강산은 시를 안 지을 수도 없지만, 또한 시를 짓기도 어렵다. 선배들도 일찍이 금강산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어렵게 여겼다. 나는 비록 聲律에 뛰어나지 못하지만 항상 시의 道는 **뽀진한 묘사**를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했다. 만일 바람과 꽃, 눈과 달 등을 멋대로 좇아 대강 詩語를 놓는다면, 北嶽을 읊은 시를 南山을 읊은 시에 덮어씌울 수 있고 東江에 대해 지은 시 역시 西湖에 옮겨다 쓸 수 있을 것이니, 비록 빛나고 선명하여 사람의 耳目을 놀라게 한들 결국에는 그 진실에 가까운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시가 없다고 말해도 된다.

내가 봉래산에 들어갔을 때부터 내금강과 외금강의 여러 승경을 두루 보면서, 돌 하나에 앉아 봉우리 하나를 대하면 詩文을 쓰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그 운치와 격조 같은 것은 본래 잘하는 것이 아니니 어찌 억지로 할 수 있었으랴. 다만 만난 것에 따라 정을 붙이고 경치마다 실재를 기록했으니, 같은 봉우리라도 비로봉과 중향성을 읊은 시가 섞이지 않으며 같은 물이라도 구룡연과 만폭동을 읊은 시가 각각 다르다. 제목을 덮고 시를 보아도 거의 이 작품이 어느 곳에서 지었는지를 알 수 있으니, 이것이 나의 뜻이다.²⁾

2) 洪百昌, 「旬日記序」(정가당문고 소장본 『東遊記實』 卷4), “金剛不可無詩, 亦難於有詩, 前輩於此, 亦嘗兩難之. 余雖踈於聲律, 而每謂詩道貴逼真, 若漫從風花雪月, 膚率下語, 北嶽之詠, 可以冒題於南山; 東江之作, 亦足移用於西湖, 雖其摘撰光鮮眩人耳目, 而終無以彷彿其實. 題如是者, 雖無詩可也. 自入蓬萊, 遍覽內外諸勝, 坐一石對一峰, 未嘗

홍백창은 詩에서 성물보다 씩진한 묘사를 중시하였다. 그는 상투적이고 진부한 詩語를 지양하고, 그 경치에 들어맞는 시어를 주의 깊게 선택해 다른 경관과 구별되는 그 광경의 실재를 묘사하려 노력했다. 다시 말해 음률과 같은 형식보다는 내용에 충실하기를 강조했고, 화려하고 눈에 띄는 수식을 지양하고 실물에 방불한 묘사를 지향하였다. 특히 별개의 승경을 다르게 표현하여 그 경치만의 특색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목을 몰라도 시를 보면 그 장소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극사실성을 구현하고자 했다. 즉 『동유기실』의 제목 중 일부인 “실재를 기록한다”〔記實〕는 창작의식을 시에서도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조선전기 금강산 한시는 금강산의 외양에 대한 묘사보다는 독자에게 금강산에서 노니는 흥취를 대신 느끼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 또 승경을 정밀하게 묘사한 작품보다 유람의 흥취를 형상화한 작품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시인들은 금강산을 보지 않고도 아름다운 금강산 시를 지을 수 있었고, 보지 않고 쓴 작품이 금강산 시의 명편으로 꼽히기도 했다. 금강산의 모습은 지형의 구체적인 묘사보다는 비유적이고 추상적인 묘사와 주체의 감흥이 더해졌을 때 독자에게 더욱 공감을 얻었다.³⁾ 이런 점에서 홍백창의 시론은 금강산을 직접 보고 그 진면목을 씩진하게 형용한다는 면에서 조선전기 금강산 기행시의 성향과는 대척적인 면에서 있다.

이러한 서문에 의거하여 『구일기』 시의 면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

無語, 若其韻致格調, 本非長焉, 豈可強爲? 而特隨遇寓情逐境記實, 等是峰也, 毘盧衆香之詩不混, 同是水也, 九淵萬瀑之詠各殊. 掩題觀詩, 庶幾知茲篇之爲某處之作, 是其志也.” 번역은 강혜규, 앞의 논문을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 필자가 수정하였다.

- 3) 이종목, 「조선 전기 문인의 금강산 유람과 그 문학」, 『한국한시연구』6, 한국한시학회, 1998, p.50. 柳夢寅, 『於于野談』, “정지승이 말하였다. ‘예전 사람이 금강산 시를 지을 때 금강산의 진면목을 본뜬 것은 있지 않았다. ‘만이천봉 금강산을 설령 설령 보고 오니 / 어지럽게 누런 잎이 나그네 옷을 치는구나 / 정양산 찬 비, 향을 태우는 밤에 / 거백옥처럼 마흔에야 잘못 산 것 알겠네’가 비록 아름다운 작품이지만, 이 시는 향림사나 정토사에서 지어도 된다. 향림사와 정토사 두 절은 서울에 있는 사찰이다.” 이종목, 앞의 논문, p.46에서 재인용.

선 서문에 등장한 비로봉·중향성을 읊은 시와 구룡연·만폭동을 읊은 시를 각각 분석해 보기로 하자. 먼저 비로봉과 중향성을 읊은 시이다.

홍백창, 『昆盧峰[비로봉]』⁴⁾

清晨出煙蘿
一逕多曲折
登登上絕巔
天高海更闊
連峰數千里
纍纍若丘垤
馳神入杳茫
恍惚倚高壁
西臨永郎帖
庶幾躡神跡

맑은 새벽에 안개 낀 념쿨을 나오니
하나의 오솔길 굽이굽이 꺾였네.
오르고 올라 절정을 오르니
하늘이 높고 바다 또한 넓구나.
이어진 봉우리가 수천 리이고
첩첩이 쌓여서 개미굴 같네.
정신이 달려 아득함에 들어가니
황홀하여 높은 절벽에 기대네.
서쪽으로 영랑점에 임하였으니
신령한 자취를 거의 다 밟았구나.

홍백창, 『白雲臺途中望衆香城』

絕境吓表裏
遲迴忘所適
前宵雨初過
瀑流添幾尺
含嘯對瑤峯
翠嵐溜欲滴
一萬銀色身
可望不可卽

[백운대로 가는 도중 중향성을 바라보다.]
안팎이 뛰어난 경치에 감탄하고
더디 돌며 돌아감을 잊었네.
어젯밤 비가 막 내렸으니
폭포에는 몇 자가 더해졌나?
휘파람 불며 고운 산을 마주하니
푸른 산기운이 방울져 흐르려 하네.
흰 빛의 일만 이천 봉우리는
바라볼 수 있으나 갈 수 없네.

「비로봉」은 그 지점까지 가는 길에 굴곡이 심하다는 점이 서술되고 높은 정상에서 바라본 수많은 봉우리와 드넓은 전망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향성에 대한 시는 전날의 비로 인해 규모가 커진 폭포를 형상화하였다. 두 시는 모두 산 정상에서 바라본 광경을 묘사했으나, 각각의 지점

4) 본고에 나온 홍백창의 시는 『東遊記實』 권4인 『旬日記』에서 인용하였다.

에 따라 그 광경의 특색과 유람할 때의 상황을 살리고자 했다.

다음은 금강산의 물의 승경으로 손꼽히는 구룡연과 만폭동을 읊은 시이다. 구룡연은 외금강에 있는 폭포로, 내금강에서 원경으로 조망할 수 있다. 금강산 유람객 중 대부분은 내금강에서 구룡연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에 만족했고, 외금강에 위치한 구룡연까지 가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흥백창의 경우 내금강에서 구룡연을 본 광경과 외금강에서 목도한 광경을 확연히 나누어 '내구룡연'과 '외구룡연'으로 지칭하고, 외금강에 있는 폭포의 바로 앞까지 탐방하여 그 승경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

흥백창, 「外九龍淵[외구룡연]」

高聲或怕老龍知	높은 소리를 혹 늙은 용이 알까 두려워
側壁橫瞻百丈垂	절벽에 기대 백 길 드리운 폭포를 보네.
下面成湫深徹地	아래에 못이 있어 땅끝까지 깊고
上頭飛沫落移時	위에 날리는 물거품은 시간 지나 떨어지네.
春春振壑何雄健	골짜기 울리는 소리는 어찌 그리 웅장한가?
細細如雲更巧奇	구름처럼 가는 물방울은 더욱 기이하네.
上有毘盧千萬仞	위에는 천만 길 비로봉이 있으니
看來氣勢兩相宜	바라보면 기세가 둘이 서로 알맞네.

흥백창, 「萬瀑洞[만폭동]」

一石成全壑	바위 하나가 온 골짜기를 이루고
衆川此合流	여러 시내 이곳에서 합류하네.
常時雷撼嶽	항상 우레가 산악을 흔드는 듯하고
不雨霧昏湫	비가 오지 않아도 운무가 못에 어둑하네.
擎攬蓬萊筆	양봉래의 붓을 가로채서
崑嶠玉女頭	높고 높은 옥녀봉 머리에 휘갈겨 썼으면.
題名崖面遍	바위에 두루 이름을 새겼으니
今古幾人遊	고금에 몇 명이나 유람했나.

「외구룡연」은 폭포를 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청각적으

로 폭포의 소리를 형용하고, 시각적으로 그 규모를 제시하였다. 폭포의 위 아래의 광경을 그린 뒤 물결과 거품이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비로봉과 짝하여 그 기세를 드러내었다. 이에 비해 「만폭동」의 경우에는 하나의 바위로 된 골짜기를 먼저 형상화하였다. 이어 우레가 치고 운무로 어두운 주변의 날씨를 통해 만폭동의 분위기를 묘사하였다. 또한 만폭동의 자랑인 楊士彦의 글씨와 옥녀봉 봉우리, 절벽에 새겨진 수많은 제명들을 언급하여 만폭동의 실재를 기술하고자 하였다. 즉 구룡연과 만폭동을 형상화할 때, 한쪽은 폭포를 중심으로 하고 다른 쪽은 절벽을 중심으로 형용하여 각각의 특징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백창의 시의 특질은 당시 조선후기 문단의 사실적 형상화와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문학사적 흐름에서 특히 金昌協(1651~1708)·金昌翁(1653~1722) 형제와 그 문인이 주창한 眞詩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眞'의 의미는 본래 시인의 성정을 의미하였지만, 점차 대상의 사실적 구현으로 초점이 옮겨졌다.⁵⁾ 이 변화의 원인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당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사실적 인식과 우리 문화에 대한 자궁이 바탕이 되어 사실주의적 예술이 발현된 현상이라 설명하기도 했고,⁶⁾ 천기론 내에서 시적 주체와 대상의 균형적 관계를 지향하여 대상 자체의 의의를 중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⁷⁾

홍백창은 김창협이 금강산 유기 「東遊記」와 김창흡의 금강산 기행시를 자신의 여행 중에 인용하며, 그들 형제의 유람을 언급한 바 있다.⁸⁾

5) 강혜선, 「17-8세기 금강산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1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2, pp.97-98.

6) 이경수·강혜선·김남기 편역, 『眞景詩로 노래하는 금강산』,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0, p.3.

7) 김형술, 「天機論의 비평사적 의의와 한시 창작상의 功效 -백악시단의 시론과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한시연구』 권22, 한국한시학회, 2014, p.318.

8) 강혜규, 「18세기 산수유기의 轉變 양상-『東遊記』와 『東遊記實』의 비교」, 『한국한문학연구』 65집, 한국한문학회, 2017, pp.242-247 참조.

일찍이 본 金三淵(김창흡·인용자)이 外九龍淵을 읊은 시에 “물길 타고 도달할 방법이 없다”(無緣乘漲至)라고 했다. 이는 외구룡연이 비가 온 뒤 폭포가 커져서 더욱 장관이 되지만, 비가 지나간 후에는 계곡에 물이 불어 지나가기 어렵고 돌이 미끄러워 가기 어려우니 유람객이 이곳에 도달하는 데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三淵이 구룡연에서 恨을 남긴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나는 이곳에 올 때 마침 오랜 가뭄을 만나 절벽이 마르고 돌이 거칠거칠하여 비교적 쉽게 올랐다. 또 얼음과 눈이 녹아내려 폭포의 흐름이 웅대했고, 또 시내를 건널 때에는 맨발로 가는 것을 꺼리지 않았으니, 끝내 물이 불어난 때를 만나 구룡연의 장관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데 이르렀다. 만일 삼연으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게 한다면, 반드시 마땅히 나에게 나와 칭찬하고 한 수 양보하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⁹⁾

홍백창은 김창흡이 외금강에서 구룡연의 진면목을 보지 않았다는 점을 그의 시를 근거로 지적하고, 자신은 이와 달리 壯觀을 다 보아 김창흡의 유람에서 한 발짝 나아갔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관련하여 홍백창을 포함한 남인 계열 문인들은 기행문학에서 고증과 정보의 체계적 정리에 큰 관심을 보인 바 있다.¹⁰⁾ 홍백창의 예처럼 당시 선배들의 산수유기의 성취에 더하여 충실한 탐방과 구체적 묘사를 심화시키고자 한 시도는 18세기 후반 문인인 沈魯崇(1762~1837)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계보·역사·의론의 문체를 차용하여 고증적이고 충서적인 성향을 강화하였다.¹¹⁾

9) 洪百昌, 『東遊記實』 卷1, “曾見金三淵外九淵詩曰, ‘無緣乘漲至.’ 盖外九淵, 雨後瀑大, 尤爲壯觀, 而雨過則溪漲難越, 石滑難行, 遊客無緣到此, 三淵之留恨於九淵者, 此也. 余於是役, 適值久旱, 崖乾石澁, 差易躋攀, 又冰雪融下, 瀑流雄大, 且於渡澗之際, 不憚裸涉, 終能乘漲, 而至得盡九淵之壯觀, 若使三淵有知, 必當進余夸許, 而不吝於一籌相讓矣.” 홍백창이 언급한 김창흡의 외구룡연시는 『三淵集』 卷9에 수록된 「瀑布」 중 제 1수로 해당 대목은 다음과 같다: “불은 물줄기 타고 이를 인연이 없고, 벼랑 미끄러워 몸이 이르는 걸 방해하는구나”(無緣乘漲至, 崖滑致身妨).

10) 강혜규, 앞의 논문, pp.229-233 참조.

11) 沈魯崇, 「書權留守金剛錄後」(『孝田散稿』), “詩而清詞, 文而傳奇, 東人之所不能爲, 山水記亦然, 殆性氣然也. 靡曼而如胥徒狀牒, 瑣屑而如婦女語讀, 前輩巨工之所不免. 稍欲卒礪者, 如許眉叟諸作, 頗近古自好, 真意反索然如析稿薪, 無一條活色. 鄉人描扮士大夫, 拜跪啁諾之際, 醜狀畢出, 傍觀可笑. 此卷圓暢而不及汗漫, 真厚而不設緣飾, 議論皆出悟解, 疏次謹守規度, 快洗沿襲之陋, 重備考據之實, 令人屢讀不厭, 乃知無意於文, 文之至也. 金季

이러한 기행문학의 흐름에서 홍백창의 시론 또한 사실적 구현을 위한 흐름의 일환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그의 『大東詩評』이라는 시 비평 저작에 대한 기록을 들 수 있다.¹²⁾ 李圭景은 조선의 詩話를 辨證하는 글에서, 『대동시평』을 徐居正(1420~1488)의 『東人詩話』에 이어 배치하고 있다. 이규경이 든 아홉 편의 조선의 역대 시화 중 『대동시평』이 포함된 것이다. 이 책이 현전하지 않아 그의 시 비평 양상을 실제적으로 논하기는 어려우나, 위의 기록을 통해 홍백창의 시론이 당대와 후대 문인에게 일정한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점은 확인된다.

Ⅲ. 『句日記』와 『文日記』의 관계

『구일기』 서문의 두 번째 단락은 독자에게 자신의 시를 성률과 격조로 판단하지 말고 노정기의 일부로 보아달라는 당부를 담고 있다. 일록을 다듬은 후, 지은 시 중 일부를 뽑아 경로를 따라 편집하여 일록과 표리가 되게 하고, “구일기”라 명명했다고 한다.¹³⁾ 즉 『구일기』의 편집과 명명에서 이미 『문일기』와의 관계를 상정해 두었고, 시의 성격을 노정기로서 규정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구일기』의 詩題에는 시인이 거쳐 간 장소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가는 도중”[途中], “돌아가는 길”[歸路], “~에 이르다”[到], “~

容尙書所爲『山史』，嚮年爲一評之。此卷合稱山譜。區區所自爲一書，竊附爲山論。史與譜與論不同，而離之兩傷，合之雙美。” 김영진 역, 『눈물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2001. 304쪽에서 재인용. 표점은 같은 책 pp.208-209 참조.

12) 李圭景, 「歷代詩話辨證說」(『五洲衍文長箋散稿』), 「我東則徐居正『東人詩話』, 洪百昌『大東詩評』, 權應仁『松溪漫錄』, 車天輅『五山說林』, 我王考炯庵公『清神錄』, 梁慶遇『靑溪詩話』. 余所未知者, 又有幾種也, 以俟隨見續錄. 而余不佞妄著『詩家點點』四五卷, 僭錄詩話之後, 便同續紹耳. 詩話之餘, 有張蔚然『三百篇聲譜』, 吾衍『九歌譜』.”

13) 洪百昌, 「句日記序」(『東遊記實』卷4), “旣修「東遊日錄」, 又抄寫所著詩若干篇, 逐其程路而編其什, 與「日錄」相表裏, 命之曰「句日記」. 覽者勿以聲格繩之, 視以一部略程記, 幸矣.”

를 출발하다」[發] 등의 여정을 표현하여 시간적 흐름을 나타내기도 한다. 즉 장소와 시간의 이동을 제목에서 드러내어 서사적 흐름을 주는 것이다. 또한 『문일기』에 나오지 않은 사건들이 『구일기』의 시제에서 등장하기도 한다. 다음은 동일한 날의 『문일기』와 『구일기』의 일기와 시의 제목이다.

『문일기』 :

「丁巳年 4월 초하루 己未일에 서울을 떠나 樓院에서 아침을 먹다(40리를 가다). 松隅店村에서 숙박하다(30리를 가다).¹⁴⁾

『구일기』 :

「관동 유람을 출발하며 외삼촌에게 편지를 드리다,

「李汝厚가 며칠 미루어 함께 출발하자고 했는데, 갈 뜻이 급하여 마침내 먼저 출발하다,

「樓院에 가는 도중」¹⁵⁾

인용한 날에는 하루에 해당하는 날짜의 일기와 총 세 편의 시가 짝을 이룬다. 『문일기』의 일자별 조목에는 몇 리를 갔는지가 주석으로 나와 있고 거쳐 간 장소와 숙박 장소가 등장한다. 『구일기』의 시제에는 그 날 시인이 했던 행동이나 벌어진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 동일한 날의 시와 산문 내용을 비교해 보면, 사안에 따라 중복되기도 하고 별도의 사건이 각각 나열되기도 한다. 가령 외삼촌에게 편지를 보낸 일과 벗이 일정을 늦추자고 한 사건은 『구일기』에만 들어가 있고, 다른 친구들을 만나 송별시를 받은 내용은 『문일기』에만 들어가 있다. 즉 하루에 있던 여러 사건을 시와 산문에 따로 배열하여 독자가 양쪽을 모두 읽어야 작가의 하루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서경과 감흥은 다음과 같이 시와 일기에서 중복되고 있다.

14) 洪百昌, 『東遊記實』 卷1, 「丁巳四月初一日己未, 離京, 午飯於樓院, 四十里, 宿松隅店村. 三十里」

15) 洪百昌, 『東遊記實』 卷4, 「將發東行簡呈仲舅」; 「李汝厚欲遲數日伴行, 行意急, 遂先發」; 「樓院途中」

[가] 홍백창, 「樓院道中[누원에 가는 도중],

二僧從我却深情
朝出都門天更晴
道氣眉濃渾謾語
塵煩胸積覺些清
山村絕小猶瀟灑
客路雖遙喜曠平
到得毘盧然後已
茲遊能不負平生

승려 둘이 나를 따라 문득 정이 깊어지고
아침에 도성 문을 나서자 하늘이 다시 개네.
미간에 영긴 탈속한 기운 따라 마음껏 말하고
가슴에 쌓인 번뇌가 맑아짐을 깨닫네.
산촌이 매우 작아도 맑고 시원하고
여정이 멀어도 넓고 평탄하여 기쁘네.
비로봉에 도달한 연후에야 그치리니
이 유람은 평생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으리.

[유자용의 송별시에 “미간에 탈속한 기운이 짙구나”(眉端道氣濃)라는 시구가 있어 함련을 이렇게 지었다.원주]

[俞子容別詩有眉端道氣濃之句, 故韻聯及之]

[나] 동문을 나서니 산천은 맑고 깨끗하고 큰 길은 하늘같이서 표연히 세상 밖을 떠날 생각이 있었다. 돌이켜 보면 허다한 날을 빈궁한 집에서 세상일에 꾸준히 힘을 다하느라 仙山에 이르지 못했었다. 유쾌하고 상쾌함을 느꼈다. 樓院에서 점심을 먹고 祝石巖을 넘었다.¹⁶⁾

인용문에서 시[가]와 일기[나]의 敍景은 맑은 하늘과 탁 트인 길의 기운을 형용하고 있고, 속세의 일에 얽매이다가 금강산으로 떠나게 되는 유쾌한 기분을 그리고 있다. 특히 시에서는 비로봉까지 유람을 다 마치리라는 각오를 보이고 있고 일기에서는 그동안 가난 속에서 바쁘게 살아온 정황이 더 자세하게 그려진다. 즉 동일한 정서나 서경을 표현하되 각각의 장르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감흥을 심화하는 것이다. 여정 중의 서정과 서사의 여러 정보가 시와 산문을 통해 확대되고 다각화되는 면모라 하겠다. 이는 기행시와 기행산문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여행체험을 총체화하는 양상이다.

16) 洪百昌, 『東遊記實』卷1, “行出東門, 山川明潔, 大道如天, 飄然有塵表之想. 回思許多年在環者, 勞碌世界, 未及到仙山而已, 覺爽豁矣. 午飯於樓院, 踰祝石巖.”

시를 산문과 표리가 되게 하여 노정기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에 서사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일기』의 시는 여정의 고난에 대한 서사가 자주 등장한다. 위험한 길에 대한 묘사는 그 자체로 뒤에 오는 여행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은 「수미탐에서 돌아오는 길」이라는 시이다.

홍백창, 「須彌歸路[수미탐에서 돌아오는 길],」

崖落猶微逕	꺾아지른 벼랑에도 작은 길이 나 있고
處處架朽木	곳곳마다 썩은 나무다리가 놓여 있네.
積氣浮雲嶠	기운 쌓여 구름이 산에 떠 있고
層氷沍陰谷	얼음 쌓여 그늘진 골짜기가 차갑네.
斜行任匍腹	엇금엇금 기어서 비스듬히 나아가고
側身緣高壁	높은 절벽 따라서 몸을 붙여 가네.
魄脆立不定	넋이 나가 곧바로 안정되지 못하고
十步恒九息	열 번 걸음에 항상 아홉 번 쉬네.
寄語後來者	뒤에 오는 사람에게 말을 전하니
斯路誠難步	이 길은 진실로 오르기 어렵다네.

이 시는 수미탐에서 돌아오는 여정을 형용하는데, 실제 가본 사람이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 벼랑으로 막힌 곳에 숨겨져 있는 작은 길의 소재와 나무다리가 군데군데 썩어 있다는 사실은 지리를 잘 모르는 여행객에게 가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어가거나 절벽에 몸을 붙여가야 한다는 대목이나, 공포와 긴장 때문에 시간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구절은 위태로움의 정도를 알려주는 정보이다. 이는 승경에 대한 감흥이나 묘사의 차원이 아닌, 독자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서사라 할 수 있다. 시에 이러한 여행정보를 담는다는 발상은, 시집을 노정기의 일부로 구성하여 독자의 실제 여행을 도우려는 취지를 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문일기』 뿐 아니라 『잡저』의 「위험한 곳의 경로와 거리에 대한 기록」(險地程路遠近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

한 정보는 일기나 수필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나, 위험을 직면한 시인의 당혹스러운 감정과 두려움, 공포 등은 시를 통해 보다 생생하게 독자에게 전달된다. 그런 점에서 시를 통한 정보의 제공은 시인의 감정과 보다 긴밀하게 결합되어 전달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산문의 전달과 차별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시의 서사성의 강화는 여정 중 만난 인물의 서사적 형상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홍백창은 푸른 두건을 쓴 여인이 보리밭에서 자신을 보는 것을 보고는, 대체 저 여인은 어느 마을 사람인지 궁금해 하고¹⁷⁾ 나무 하는 아이가 꽃을 꺾어가는 걸 보고 산중의 남은 봄을 다 가져가 버렸다면 허를 차기도 한다.¹⁸⁾ 이러한 주변 인물의 이야기가 시에 삽입되는 것은 다소 단편적이고 산발적이지만, 다음의 객주 노파에 대한 시는 노파가 직접 시적 화자가 된다는 점에서 서사성이 보다 강화된 면모를 보인다.

홍백창, 「宿梁門店, 店嫗爲余說生理艱難, 殊覺矜憐, 作貧女吟[양문점에서 숙박하였다. 주막 할멈이 생계가 어렵다고 말하니 내가 매우 불쌍히 여겨 가난한 여인에 대한 시를 지었다.]」

青麥刈來炊未得	설익은 보리 베어온들 밥 지을 수 없고
小廚薪濕不生煙	작은 부엌엔 썰나무가 젖어 불 피울 수 없지요.
良人素乏經營力	남군이 평소 집안 돌볼 힘이 없어서
家事今年似去年	집안 형편은 올해나 작년이나 마찬가지지요.

인용된 시의 서술방식은 객주 노파가 주인공이 되어 그의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 시의 문면에는 보이지 않으나, 시인은 여행 중 객점에 들러 밥을 청했을 것이고, 객점 노파는 밥을 대접할 수 없는 상황을 변명하기 위해 시의 내용에 해당하는 답을 했으리라 짐작된다. 즉 주인공 객점 노파 외에도 노파와 대화하는 시인과 대화 속에 나오는 노파의 남군이 시의 바깥에 존

17) 洪百昌, 「金化驛」(『東遊記實』卷4), “青巾覆額何村女, 小麥田中立視人.”

18) 洪百昌, 「孫馬嶺」(『東遊記實』卷4), “樵童亂折殘花去, 減得山中幾處春.”

재하며, 이들의 형상을 편린이나마 독자가 그려볼 수 있다. 나그네의 밥을 지을 수 없는 짧은 한 순간이 해가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집안형편과 연결되어 노파의 힘겨운 삶을 담아내고 있다. 시인과 노파가 대면한 순간의 묘사를 통해 노파의 일생을 눈에 보이듯 실감나게 그려내고 있으며, 특히 노파의 목소리로 사연이 서술되는 면에서 독자는 보다 쉽게 감정을 이입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 속의 찡찡한 서사는 한층 더 생동성을 갖는다. 요컨대 흥백창이 찡찡한 묘사를 강조하고 시와 산문을 연결시켜 시에서 정보의 제공과 서사적 형상화를 강화한 점은, 산수와 인물의 형상을 각인시키고 시인의 감흥을 독자에게 보다 강렬하게 전달하는 문학적 효과를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구일기』와 『문일기』의 관계는 정보를 교차 배치하는 방식과 반복과 중첩에 의한 정보의 확대와 심화, 여정의 정보와 인물서사를 통한 서사성의 강화 등을 통해 보다 깊은 연관을 맺었다. 기행시에서 실험된 찡찡한 “記實”은 기행산문에서 서경과 서사의 일부를 가져오고, 이를 감흥과 결합시켰다.

비록 본고에서는 『구일기』의 특징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나, 조선후기 기행시와 기행산문의 관계는 보다 다각적으로 조명될 필요가 있다. 조선후기로 들어와 기행시는 기행일기에 점점 더 많이 수록되는 경향을 보인다. 가령 安錫徽(1718~1774)의 금강산 기행문 『東行記』는 기행시와 기행유기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금강산의 형상화에 상호적으로 기여한다.¹⁹⁾ 또 李景奭(1595~1672)의 금강산 유기에는 53편의 시가 있고, 李夏鎭(1628~1682)은 59편을 수록하였으며, 尹鑣(1617~1680)의 유기에는 67편의 시가 실려 있다. 이들의 기행문학 속에서 기행시는 기행산문과 하나의 작품으로 묶여 일정한 영향관계를 주고받았다. 이 점에서 기행시와 기행산문의 관계에 대한 탐구는 조선후기 기행문학의 또 하나의 특징을 밝혀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9) 강혜규, 「삼교 안석경의 산수와 문학·遊記와 관련 장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31, 한국한문고전학회, 2015 참조.

IV. 결 론

『구일기』에서 드러난 홍백창의 시론은 성률과 격조를 탈피한 점과 핼진성을 가장 우선시한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후 丁若鏞은 「노인의 유쾌한 일 한 가지」(老人一快事)라는 시에서 “운자나 성률에 얽매일 필요 없네”(競病不必拘)라는 구절을 통해 중국의 시와 차별된 조선시를 선언한 바 있다. 조선후기 한시의 흐름 중 하나가 운격과 평측이 자유롭게 사용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구일기』의 시적 지향은 이러한 흐름과 관련을 맺고 있다.

또한 조선후기 한시가 대상을 묘사함에 있어 핼진성은 중요한 화두이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시적 경향은 점차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경향으로 전환된다. 이는 특히 朴趾源과 그의 문인 李德懋, 朴齊家 등의 시에서 잘 드러난다. 이들은 시에서 세밀한 관찰을 통해 실상을 핼진하게 묘사하며 회화적 특색을 드러내었다. 홍백창이 주창한 “記實”은 이러한 조선후기 한시의 주요한 흐름과 관련지어 조명될 필요가 있다.

〈參考 文獻〉

- 沈魯崇, 김영진 역, 『눈물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2001.
- 이경수, 강혜선, 김남기 편역, 『眞景詩로 노래하는 금강산』,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0.
-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古典刊行會本, 東國文化社, 1959.
- 洪百昌, 『東遊記實』(일본 정가당문고 소장본)
-
- 강혜규, 「농재 홍백창의 『동유기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_____, 「18세기 산수유기의 轉變 양상-『東遊記』와 『東遊記實』의 비교」, 『한국한문학 연구』 65, 한국한문학회, 2017.
- _____, 「삼포 안석경의 산수와 문학-遊記와 관련 장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문고 전연구』 31, 한국한문고전학회, 2015.
- 강혜선, 「17-8세기 금강산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 1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2.
- 김형술, 「天機論의 비평사적 의의와 한시 창작상의 功效 -백악시단의 시론과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한시연구』 22, 한국한시학회, 2014.
- 이종묵, 「조선 전기 문인의 금강산 유람과 그 문학」, 『한국한시연구』 6, 한국한시학회, 1998.

Abstract

A Study on Hong Baek-chang's Guilgi

Kang Hye-kyu^{*}

Guilgi(旬日記) is a Mt. Kumgang travelogue written by Hong Baek-chang(洪百昌) in his mid-thirties, an eighteenth-century writer. This article analyzes Guilgi based on the creative consciousness mentioned in the preface of Guilgi, while on the one hand focusing on Hong Baek-chang's poetic-oriented advocacy, and on the other hand paying attention to the related aspects of travel poetry and travel prose. In the preface of Guilgi, Poet Hong Baek-chang, advocated a new literary tendency with criticism towards the existing literary tendencies of the time. Hong Baek-chang's poetics revealed in Guilgi can be summarized as a break from rhythm and tone, while prioritizing verisimilitude. Next, Guilgi can be paired with Munilgi(文日記), a travelogue within Dongyugisil(東遊記實), which can be the beginning for illuminating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ravel poetry and travel prose. 'Guilgi' signifies diary written in poetry, which has duplicity with 'Munilgi' that refers to diary written in prose within Dongyugisil. Guilgi and Munilgi establishes a duplicity relationship from the creative consciousness, thereby pairs their titles, closely interrelates the correlation by arranging the travel sequence to match the poetry to the diary, and by weaving them into a series.

【Key words】 Dongyugisil(東遊記實), Hong Baek-chang(洪百昌), Mt. Kumgang(金剛山), Guilgi(旬日記), Munilgi(文日記)

투고일 : 4월 28일, 심사완료일 : 6월 18일, 게재확정일 : 6월 18일

^{*} Lecturer of University of Seoul / wyeyang@naver.com

